



간추린 청렴 소식

[1] 공주시청, '열람등사 업무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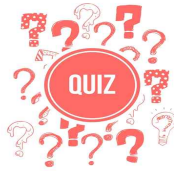


공주시청(지청장 김현)은 '20. 6. 15. ~ 26.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열람 등사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대신한 설문조사로 민원인 의견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

[2] 속초지청, '월요 청렴퀴즈' 실시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은 지청장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통해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월요 청렴퀴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청장의 청렴인지 표명은 물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퀴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3] 수원지검, '청렴 포토 모자이크' 제작·게시

수원지검(검사장 조재연)에서는 '20. 5. 21. ~ 29. 청렴 문구 공모와 함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콘셉트로 직원 사진을 촬영한 후 '청렴 포토 모자이크'를 제작·게시' 하였습니다.



'함께 뿌려요 청렴문화, 함께 키워요 청렴의식!' 공모전 1위 선정 문구는 포토 모자이크 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4] 영덕지청, '지청장 1분 청렴 방송' 실시



영덕지청(지청장 이근호)은 '20. 4. ~ 6. 매주 월요일에 '지청장 1분 청렴 방송'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청장이 직접 역사 속 인물의 청렴 이야기를 작성하고 전직원에게 소개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알아두세요

반부패 청렴 O-X 퀴즈

'반부패 청렴 의식'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간단한 문항의 OX퀴즈로 청렴 소양을 확인해보세요!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
2.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만 신고 대상이다. ()
3. 외부강의등은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정답 1. X,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취업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 / 2. O,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20.5.27.)에 따라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만 신고 대상 / 3. O,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사전신고 → 사후신고로 개정)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절고 색소폰을 제법 불던 파커는 즉흥 연주에 참여했다가 연주를 망쳐버렸어... 그는 비웃음 속에서 퇴장했고 밤엔 울다 잠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뭘 했는지 알아?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영화 '위플래쉬(Whiplash)' 중



7월의 추천 영화는

위플래쉬

(2014년 개봉 / 감독 다미엔 차젤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마일스 텔러 분)는 대학에서 정상의 실력자이자 폭군 교수인 플래처를 만나게 되고, 술한 좌절 속에서도 그에게 인정받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한계를 넘어선 연주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현재의 좌절에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불태운다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 낼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명대사입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오른쪽 그림은 제주지검의 청렴 마스코트 '청콩이'(청렴의식을 콩 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제주에서는 왜 '말채찍 모양'을 청렴 마스코트로 삼았을까요?



**조선 초기, '행동하는 청렴'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청백리와 제주 백성들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1470년부터 1473년까지 제주목사를 지낸 이약동(李約東, 1416 ~ 1493)선생은 재임하는 동안 아전들의 전횡을 근절하고 세금과 공물을 줄여 백성들의 괴로움을 덜어 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송덕비를 세우려 하였지만 그는 이를 엄히 막았으며, 선물을 바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만들어 올린 말채찍 하나는 차마 물리칠 수 없어 사냥을 나갈때 항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임기가 끝나고 제주도를 떠나게 되자 그는 백성들에게 받은 말채찍은 가지고 갈 수 없다하여 벽에 걸어두고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제주목사에게 바친 것이니,
이것은 후임 제주목사가 써야한다"**

그 후 말채찍은 목사가 정사를 다스리는 곳에 걸려 후임 목사들이 그의 선정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후손들은 말채찍이 다 닳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림으로 벽에 그려두어 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올리던 산신제로 인해 백성들이 얼어죽는 등 고통이 이어지자 이약동 목사가 한라산 초입으로 제단을 옮겨 만든 산천단. 위 사진은 산천단에 있는 [이약동 목사의 공덕비]

청렴 사회는
구성원 하나하나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공직자인 우리 자신의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 1면에 머리 기사로 보도된다 해도 떳떳한지 생각해 보고, 그 답이 'No'라면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윤리 원칙은 무엇일까요?

- ① 양심 법칙 ② 뉴욕타임즈 법칙 ③ 회고 법칙

※ 힌트 : Monthly청렴 2020년 6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0. 7. 20.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6월 정답은 ③ **참고인증지 재기** 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축!
당첨

김○○(인천), 최○○(포항), 김○○(충주), 장○○(의정부),
임○○(성남), 권○○(울산), 엄○○(부산동부),
정○○(부산), 김○○(춘천), 서○○(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담당직원이 검수과정에서 한 번에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을텐데 대충 알려주니까 복사를 2-3번 정도 다시해야 되고 종이 낭비에 재판일정도 늦어져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바쁜 업무 속 여러 민원을 처리하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려와 친절이 담긴 한 번의 설명은 민원인과 담당자 자신의 노고를 덜어준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후 방문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부터 수입인지를 미리 구매하여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 까지 미리 안내해주어 신속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성남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ㄹ

